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도망가 쉬어도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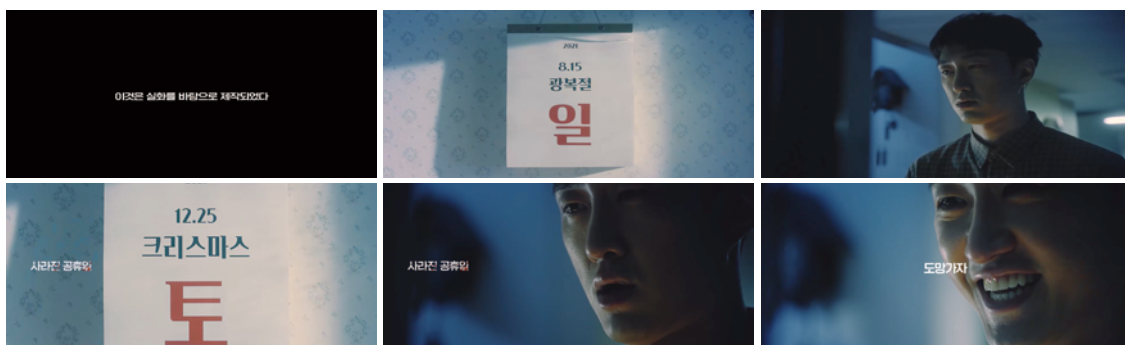
글 최은섭 | 한라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mrsrah@halla.ac.kr



지난여름 치러졌던 도쿄올림픽은 여느 올림픽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경기 내내 누가 메달을 목에 걸었고 금메달 은메달은 몇 개씩이냐에 관심이 집중됐던 과거 올림픽과는 달리, 노메달이어도 감동과 환호로 빛나는가 하면 비인기종목이어도 응원과 박수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바뀐 것은 언론이나 관중들만이 아니었다. 선수들 자신도 실수로 메달을 놓치거나 안타깝게 순위에서 밀려나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대신 경기 자체를 즐기며 다음 올림픽을 기약하는 당당함을 보여줬던 것이다. 이

른바 MZ세대들의 이렇듯 여유 있고 해맑은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고도성장을 이뤄오면서 실적과 성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뛰어난 성적이 아니면 칭찬받을 엄두도 못 냈던 기성세대들에게는 낯설고 신선하면서도 부러운 기분마저 들게 하였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들 밀레니엄 세대들이 태어날 무렵인 2000년대 초 우리 삶 속엔 이미 이런 신선한 여유가 싹트고 있었는데, 당시 현대카드 광고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광고 속에서 젊은 남녀는 달리는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자유를 만끽하며 “떠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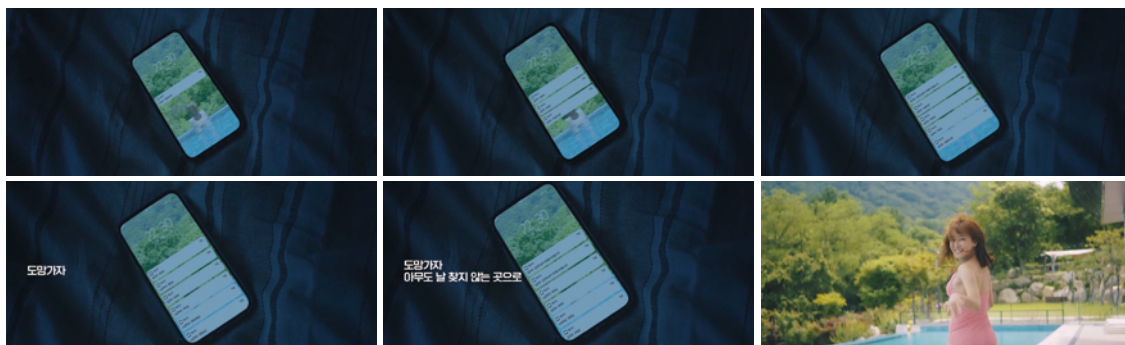
여기어때 '공휴일' 편



여기어때 '성적표' 편



여기어때 '엄마' 편



여기어때 '업무메시지' 편

* 자료출처 : www.tvcf.co.kr

고 외쳤고, 쉼 없이 일에 파묻혀 살던 직장인들에게 이 외침은 당장이라도 다 버리고 떠나고 싶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유혹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열심히 일한 당신”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었다. 마음은 굴뚝같아도 무작정 떠나기에 현실은 녹록치 않았기에, 열심히 일했다는 성과가 없다면 어디든 떠날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생각은 하지 말라는 조건부가 깔려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힘들면 무조건 도망가도 좋다고 말해주는 광고가 있다. 전국 숙박 포털사이트 ‘여기어때’ 광고가 그것이다. 2015년 전국 모텔호텔 검색사이트로 출발한 여기어때는 이듬해부터 가족숙박으로 범위를 확장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침체에 ‘일상 탈출’이라는 틈새시장 공략을 기획하였다. 이른바 ‘도망가자’ 캠페인이다.

첫 편은 ‘지옥철’ 편으로, 마스크까지 쓰고서 발 딛을 틈 없는 지하철에 시달려야 하는 도시민들의 일상을 보여주며 “도망가자,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으로”라고 말한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산이나 바다로 떠나 숨 한번 크게 내쉴 수 있다면 내일의 출근이 조금은 가벼울 것 같은 현실의 유혹이다. 두 번째 ‘공휴일’ 편은 유난히 공휴일마다 주말이 겹쳐진 올해 달력을 보는 직장인의 한숨이 그려지고, 보너스처럼 주어진 대체 공휴일을 겨냥해 “사라진 공휴일이 돌아왔다, 여기서 행복하자”라고 위로한다. 세 번째 ‘성적표’ 편은 학기말 성적표를 조회하는 대학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면서 “도망가자, 아무도 날 평가하지 않는 곳으로”라고 말한다. 성적이 좋지 않아도 방학은 즐길 권리가 있고 며칠쯤은 평가받고 싶지 않은 자유를 꿈꾸게 한다. 네 번째 ‘알람’ 편은 아침마다 알람 소리를 들으며 눈떠야 하는 지긋지긋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 “도망가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곳으로”라고 속삭인다. 기분 좋고 설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신기한 경험을 누구나 떠올릴 수 있을 것

이다. 다섯 번째 ‘운전시비’ 편은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질 수밖에 없는 도심 운전자들에게 “부딪힐 일 없는 곳으로 도망가자”고 달래고 있고, 여섯 번째 ‘업무메시지’ 편에서는 낮이고 밤이고 울려대는 상사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서 “도망가자,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곳으로”라고 제안한다. 가장 최근의 ‘엄마’ 편은 방역지침으로 학교를 못가는 아이들을 돌보며 재택근무까지 하고 있는 워킹맘에게 “도망가자, 엄마도 휴가가 필요하니까”라고 말하며 엄마라도 지치고 힘들면 쉬어야 한다는 진실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휴식은 뭔가를 끝내놔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휴가도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뤄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중간에라도 지치면 쉬어야 하고 힘들면 떠나서 잊어버렸다가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만 쉬어야 하는 고도성장 시대의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당연히 쉬어야 할 때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미안해해야만 했다. 나의 휴식이 옆 동료의 일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도 언젠가는 쉬어야 하니까, 우리 휴식 앞에 당당해야 한다. 잘하지 못해도, 끝내지 않아도 언젠개 도망가서 재충전하고 돌아오면 더 즐겁게 나의 일을 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❶



최은섭

한라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광고회사에서 15년간 카피라이터로 근무하며 <아모레 마몽드-산소같은 여자>, <유한킴벌리 화이트-깨끗함이 달라요> 등의 카피를 남겼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에서 광고 크리에이티브와 브랜드 관련 수업과 연구를 해왔다.